

한국사회보장정보원-SK텔레콤 · SK브로드밴드,

AI · 클라우드 · 양자보안으로 복지 혁신 ‘맞손’

- 위기가구 발굴 지원 · 보안체계 실증 · 클라우드 기술 협력 등 4대 과제 추진 -
- 공동운영협의체 구성해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-

한국사회보장정보원(원장 김현준)은 지난 14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SK텔레콤, SK브로드밴드와 AI · 양자보안 ·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사회보장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.

이번 협약은 AI를 활용한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지원하고, 정보보안 역량과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.

세 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공공 보건복지 플랫폼 운영 경험과 SK텔레콤 · SK브로드밴드의 AI · 양자보안 · 클라우드 기술 역량을 결합해 사회보장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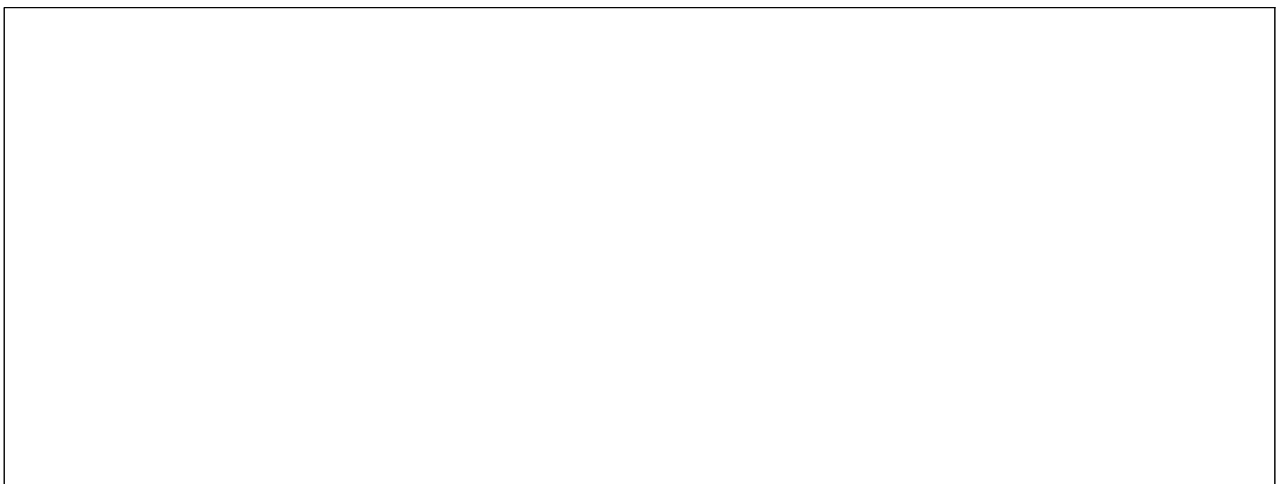
주요 협력 과제는 ▲양자내성암호(PQC) 기반 AI 자율형 보안 운영체계 실증 ▲복지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등 AI 기반 보건복지 서비스 개발 지원 ▲PQC를 활용한 보안 강화 및 양자통신 적용 지원 ▲클라우드 내 하드웨어 · 소프트웨어 · 보안 시스템 구축 · 운영 기술 지원 등 4개 분야다.

특히 PQC 기반 AI 자율형 보안 운영체계 실증은 양자컴퓨터 발전에

따른 잠재적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사회보장 시스템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다. PQC는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암호기술이다.

세 기관은 공동운영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과제별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,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. 이를 통해 기술 협력이 국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고도화 및 ICT 기술발전에 따른 정보보안 위협으로부터 선제적 방어체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.

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 “이번 협약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 “SK텔레콤·SK브로드밴드의 AI·양자보안·클라우드 역량을 공공보건복지 플랫폼에 접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복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”고 말했다.



[사진 설명: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SK텔레콤·SK브로드밴드 업무협약식에서 김현준 원장(왼쪽에서 세 번째)이 SK텔레콤 김구영 부사장 및 관련 임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. / 한국사회보장정보원]

담당본부	정보보호본부	책임자	김유석 본부장	02-6360-6570
담당부서	개인정보보호부	담당자	박춘복 부장	02-6360-6961